

## 독락당(獨樂堂) 일곽(一郭)의 계획개념과 설계원리

### The Planning Concepts and Design Principles of Dok-Rak-Dang Block

장선주\*  
Jang, Sun-Joo

#### Abstract

This research purposes to understand architectural aim which the owners of buildings in the Doa-Rak-Dang block pursue through the history of family and construction. Moreover its other purpose is to find the design concepts which were selected to achieve the aim and the design elements which were applied to realize the design concepts. To accomplish the objects, it got rid of a stationary viewpoint but it approached with a dynamic viewpoint which can read the changes in the steps during various periods. Through the 100-year history of construction, the architectural aim of the Doa-Rak-Dang block is to establish the tradition of the Ok-San-Pa family to get over the social limitations of the family of a child by a concubine which began from Lee, Eun-Juk's mistress. The design concepts which were used by the owners of the Dok-Rak-Dang block to achieve the purpose are the extension of public territory and the enrichment of territoriality which have social-political, economical and symbolic means. The geometric applications such as axes and regulating lines were the design elements which were chosen to fulfill the concepts. If the establishment of the architectural aim and design concepts, the process of selecting and constructing proper design elements, and the geometric application in the process are the design principles of the Doa-Rak-Dang block, the principles can be summarized as the geometric applications of axes and regulating lines interacting as the standard of the extension of public area

Keywords : Dok-Rak-Dang, Planning Concepts, Design Principles

주요어 : 독락당, 계획개념, 설계원리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경주 옥산리에 위치한 독락당 일곽은 16세기 주거 가운데 매우 예외적인 존재이다. 우선 자계(紫溪) 골짜기의 계류를 끼고 입지하고 있으며 본가가 아닌 소실부인의 서가(庶家)에서 출발하였다.<sup>1)</sup> 옥산리에서 12 km 정도 떨어진 양동에는 정실부인의 본가가 있지만 화재 이연적(1491-1553)은 소실부인을 맞이하면서 독락당 일곽의 살림채를 건립(1515)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독락당 일곽은 계속 증축되어 총 7동의 규모로 까지 확장되었다. 특히, 독락당의 사랑영역, 계정의 정자영역, 사당영역, 어찰을 보관하는 어서각영역, 공수간의 행랑영역 등 공적영역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또한 사적영역뿐만 아니라 공적영역들도 건물과 담장으로 에워싸으로써 각 영역들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유사한 크기의 정방형 윤곽을 지니고 있다. 이는 본가인 무첨당 일곽에서는 보여 지지 않는 특징

\*정회원(주거자, 교신저자),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강사,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Sun-Joo, Jang, Dept. of Architecture, Chungbuk Natl. Univ., 52 Naesudong-ro, Heungdeok-gu, Cheongju, Chungbuk 361-763, Korea. E-mail: room-70@hanmail.net

들이다. 이처럼 서가에서 출발한 독락당 일곽이 지나는 건축적 특이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현황에 대한 분석보다는 과거 독락당 일곽을 건축했던 건축주들의 건축적 목표를 밝히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독락당 일곽의 가계사와 조영사를 통해 독락당 일곽 건축주들이 지향하고자 했던 건축적 목표를 파악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으며 더 나아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채택된 계획개념과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적용된 설계요소들을 파악하는 데 이차적 목적이 있다.

### 2. 연구의 방법

독락당 일곽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실측 및 인문조사를 통해 독락당 일곽의 도면화와 내력(來歷)을 고찰한 것<sup>2)</sup>,

1) 16세기 주거로 서백당(1457), 관가정(1514), 무첨당(1491년경), 임청각(1519), 향단(1540년경) 등이 있으며 서백당은 우재 손중돈의 본제이면서 1924년 사당을 건립하여 관가정에 모셨던 양민공 손소의 신위를 이안함으로써 월성손씨의 대종가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관가정은 그 이전까지 월성 손씨의 종가였으며, 무첨당은 화재의 본가이자 여강이씨의 종가, 임청각은 고성이씨의 종가, 향단은 여강이씨 향단파의 파종가이다.

2) Kim, K.(1984). A Study on the Dok-Rak-Dang a residence of Cho-seon dynasty (I).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8(12), 32-39.

시각구조의 관점에서 독락당 계정과 경관의 상관관계를 고찰한 것<sup>3)</sup>, 학예일치라는 시각을 바탕으로 독락당 일곽의 특이성을 해체예술론적으로 고찰한 것<sup>4)</sup> 등이 있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은 100여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장 변화되어 온 독락당 일곽을 고정된 시점의 정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크게 3대(이언적, 이전인, 이준)에 걸쳐 완성된<sup>5)</sup> 독락당 일곽을 여러 단계의 시간적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동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한다. 우선 독락당 일곽의 가계사와 조영사를 고찰하고 그에 따른 건축적 특성을 파악한다. 두 번째로 건축구성의 시기적 변화를 고찰하여 건축적 목표와 독락당 일곽의 계획개념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구축하는 과정 속에서 적용된 설계원리를 파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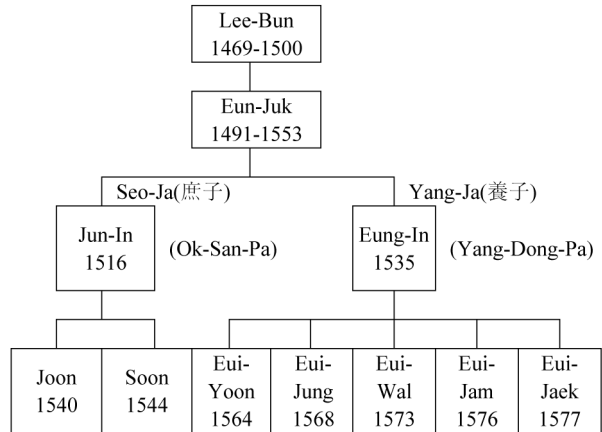
## II. 여주 이씨의 가계사와 조영사

### 1. 여주이씨 옥산파의 가계사

독락당 일곽의 입향조는 조선조 전기를 대표하는 사람파(士林派) 사상의 이론적 체계화를 달성한 최초의 철학자이자 성리학자였던 회재 이언적(1491-1553)이다. 그의 부친인 이번(1463-1500)은 조선 초기(세조 9년~연산군 6년)의 문신으로, 월성손씨 양민공 손소(1433-1484)의 장녀이자 우재 손중돈(1464-1529)의 여동생인 손씨부인과 혼인하여 영일에서 처가인 경주 양동으로 옮겨 세거지로 삼았다. 그리고 옥산리에 정자를 지었으며 회재는 어린 시절 이 정자에서 수양했다고 전한다. 이번은 회재가 10세 때 세상을 떠났으며 이후 회재는 양산, 김해, 상주 등 외지에서 관직생활을 하는 외숙 우재 손중돈을 따라다니며 가르침을 받았다.<sup>6)</sup> 회재는 18세(1508)에 정실부인 함양 박씨를 맞이하였고 24세이던 1514년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그리고 25세(1515)에 소실부인 양주 석씨부인을 맞이하였다. 회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그의 대를 이은 양자였고 또 한 사람은 회재의 친아들이었지만 대를 이을 수 없는 서자였다. 이전인(1516-1568)은 하나 밖에 없는 회재의 친아들이었지만 서자였기에 아버지의 대를 잇지 못했으며 대신 1551년 회재의 5촌 조카 응인(1535-1593, 당시 15세, 회재 61세)이 양자로써 대를 이었다.<sup>7)</sup> 그러나 회재의 정실부인 박씨는 서자인 이전인에

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으며<sup>8)</sup> 회재 또한 적자인 양자 이응인에게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을 물려주고 서자인 이전인에게는 독락당을 비롯해 자신이 옥산지역에 들어와 스스로 일군 재산을 모두 물려주었다.

Table 1. Lee's Family Tree



당시 독락당의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자계 일대에 독락당을 짓고 농장을 경영했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농장(農莊)이 중세적 대규모 토지소유를 암시하는 용어이므로 막대한 재산의 규모를 짐작할 해 볼 수 있다.<sup>9)</sup> 이전인은 1539년 22세 때에 부인 진주 하씨를 맞이하였고 1540년에 아들 준이 태어났고, 1544년 둘째 아들 순이 태어났다. 이때 회재 나이 54세였다. 그러나 회재는 57세 때(1547) ‘양재역 벽서사건’에 연루되어 평안도 오지 강계로 유배되고 만다. 이전인은 유배지에 따라가서 6년간의 유배 끝에 회재가 임종 때까지 수발한 효자였다. 유배기간 중 부친과의 학문적 대화 내용을 기록하여 「관서문답록(關西問答錄)」을 저술하였으며 1568년 향년 53세로 별세하였다. 이전인의 두 아들 이준(1540-1623)과 이순(1544-?)도 이언적과 이전인으로 이어지는 가문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601년 형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독락당 일대를 지켜나갈 재산을 추려냈다. 이 자금은 다른 명목으로 쓰지 말 것이며 후손들도 종가를 중심으로 뭉쳐서 조상을 기억하고 가문을 유

3) Choi, S., Kim, K., & Hong, D.(2001). A Comparative Study on the Method of Introducing Natural Landscape in Kwan-Ga-Jung and Dok-Rak-Dang Ke-Jung.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78(8), 121-127.

4) Kweon, H.(2006). A Study on Dok-Rak-Dang and Hyang-Dan Upper Class of Chosun Dynasty with The Perspective of Deconstructionist Art Theory.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History, 15(4), 87-98.

5) 문화재청(2002). 독락당 실측조사보고서(중요민족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제27호). 대전: 문화재청, 97.

6) 이성형 외 9인(1992). 회재의 사상과 그 세계.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350.

7) Lee, C. (1998). A Comparative Study on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Dok-Rak-Dang and Hyang-Dan; Through Analysis by Their Design Proc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Ulsan, Ulsan, 6.

8) 별급분계기(보물 제1476-56호), 적모가 서자에게 재산을 떼어주는 것은 드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9) 김봉렬(1996. 08). 은둔을 위한 미로들-독락당과 옥산서원. 서울: (주)이상건축, 91-92 참조. 회재의 외할아버지인 손소가 슬하의 7남매에게 재산을 배분한 기록에 의하면 회재 어머니에게 노비 18인과 360결 정도의 논밭을 분재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처럼 외가에서 물려받은 재산, 관직생활을 통해 증식된 재산, 그리고 석씨 부인의 친정 재산까지가 합쳐진 막대한 재산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지, 발전할 것을 당부하는 화의문(和議文)<sup>10</sup>도 작성하였다. 서자가문의 옥산파와 양자가문의 양동파 가계서는 <Table 1>과 같다.

2. 독락당 일곽의 조영사

현재 독락당 일곽을 지키고 있는 이해철씨는 18대에 속한다. 독락당 일곽의 건축적 변화는 대개 이연적, 이전인, 이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Table 2. Record of Building Construction

Name of Building	Year	References
Salimchae <sup>11)</sup>	1515	Theses <sup>12)</sup>
	1532	A survey report on Dok-Rak-Dang/Thesis <sup>13)</sup>
Dok-Rak-Dang	1532	The authorized biography of Lee, Eun-Juk
Ke-Jung Remodeling	1533	The authorized biography of Lee, Eun-Juk
Sa-Dang & Eo-Se-Gak <sup>14)</sup>	1554	A survey report on
	1835	Dok-Rak-Dang/Thesis <sup>15)</sup>
Kong-Soo-Kan & Weo-Sam-Moon	Since then	A survey report on Dok-Rak-Dang

10) 이준형제 「화의문」. 1601(선조34년), “계정과 독락당은 돌아가신 조부 문원공 회재 선생의 별서이다. 유택이 완연하여 담장을 애호함이 간절하다. 우리 형제가 공경하며 지켜온 당우를 겨우 물 뿌리고 쓸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였다. 그러나 혹 후손들이 공박하고 석잔해 질 것이 걱정되며 불초하여 수호하는 도리를 다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손의 정이상 남들이 보고 듣기에 어찌 허물이 아니겠는가 우리 형제간에 상의하여 약간의 토지와 노비를 내어 놓아 후일 계정과 독락당을 수호하는 밑천으로 마련하려고 하니 종자, 종손은 이 전민을 지켜 이 뜻을 폐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만일 이 전민을 가지고 다루려 하는 자는 불효로서 논단할 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11) 살림채의 건립시기에 관한 두 가지 이견이 있다. 하나는 소실부인을 맞이하면서 현 계정의 자리에 초려삼간을 지었다가 1532년 독락당과 함께 건립되었다는 의견이 있으나 살림채가 신축될 때까지의 17년 동안 석씨부인과 회재의 아들 이전인이 초려삼간에서 거주했다는 추정은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진다. 다른 하나는 소실부인을 맞이하면서 소실부인의 재력으로 1515년 현 위치에 건립하였다는 것이다.

12) Kim, K. (1984). A Study on the Dok-Rak-Dang a residence of Cho-seon dynasty (I).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8(12), 34. 김봉렬(1996.08). 은둔을 위한 미로들-독락당과 옥산서원. 서울: (주)이상건축, 89. Lee, C. (1998). A Comparative Study on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Dok-Rak-Dang and Hyang-Dan; Through Analysis by Their Design Proc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Ulsan, Ulsan, 16.

13) Kim, S., & Choi, H.(2003). A study on the spatial Configuration and Construction on Dokrakdang.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9(11), 200.

14) 어서각 건립시기에 관한 두 가지 이견이 있으며 하나는 회재 사후 이전인이 1554년 사당과 함께 건립하였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1835년 건립되었다는 의견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573년 옥산서원에 수장되었다가 임진왜란으로 인해 도덕암에 일시 보관되었던 ‘삼국사기’를 난리가 끝난 후부터 1972년 옥산서원의 수장고인 청분각이 세워질 때까지 독락당의 어서각에 보관하였다는 기록(동아일보 연재, 2012.04.19, 함성호의 옛집 읽기)과 아버지의 명예회복에 힘써 회재를 복작케한 회재의 아들 이전인에 의해 건립되었다는 의견에 따른다.

현재 독락당 일곽에 남아있는 문헌 및 관련 자료를 통해 독락당 일곽 조영의 역사적 근거를 찾아 그 변화과정을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3. 조영사에 따른 건축적 특성

1) 소실부인의 생활공간, 살림채(이연적)

회재는 과거에 급제하고 고향인 경주향교 교관(1515~1517)으로 있으면서 양주 석씨를 소실부인으로 맞이한다. 그리고 옥산리에 소실부인의 재력으로 독락당 살림채와 숭방채(행랑채)를 건립하고 독락당 일곽의 기틀을 잡는다.<sup>16)</sup> 이 곳 옥산리에는 자계천을 끼고 아버지 이번(1463-1500)이 소유 하였던 정자(현 계정)가 있었고 회재가 14세 때에 산사에서 공부하였던 인연과 부근에는 정혜사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동의 본가처럼 종택이 지녀야 하는 상징성과 권위 등의 입지조건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 있었던 곳으로<sup>17)</sup> 위의 조건들은 양동 본가와 별도로 소실 양주 석씨와의 생활에 적합한 장소로 보여 진다.<sup>18)</sup>

2) 장수(藏修)와 유식(遊息)의 공간, 독락당(이연적)

회재는 경상도 어사나 밀양부사 등 고향 주변의 외직에 있었으며 31세 때 홍문관박사겸 경연사겸 춘추관기사관이라는 임금의 학문을 돕고 국학을 주관하는 일에 참여하다가 41세 때 김안로의 재등용을 반대하다가 관직을 박탈당하고 낙향하게 되었다. 낙향하면서 양동의 본가가 아닌 옥산리의 서가에 거처하게 된다. 그리고 1532년 42세의 회재는 별당 사랑채로서 독락당(옥산정사)을 증축하고 1년 후 계정을 개수하였다. 관직을 박탈당하고 낙향한 상황으로 인해 좌절과 도피처로서의 공간이 필요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당시 선비들은 장수(藏修)와 유식(遊息)을 실현할 수 있는 건축공간으로 정자(亭子)나 정사(亭舍)를 건립하였고 이를 통해 고도의 인격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sup>19)</sup>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회재는 독락당 증축 후 옥산리 일대를 본격적으로 개간, 개발하고 매입하여 재산을 증식하였고 이러한 결과 회재 사후 17세기에는 독락당 일곽과 옥산서원 일대가 완전히 옥산파의 소유가 되었으며<sup>20)</sup> 이는 서손들이 힘들게 살지 않을 수 있는 기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15) Kim, K. (1984). A Study on the Dok-Rak-Dang a residence of Cho-seon dynasty (I).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8(12), 36.

16) 독락당 소장. 石氏父石貴童別給文記.

17) 홍만선(1982). 산림경제 I. 서울: 민족문화추진위, 29-43 참조. “이곳은 壬坐丙向으로서 選方으로放水하고 있어 「黃泉殺」에 해당되니 금지하는 바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듯이 좋은 입지조건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18) 최영성(2001). 조선유학 사상사 II. 서울: 아세아문화사, 257. 당시 절제와 금욕을 미덕으로 여겼던 유교사상에 반해 여성관계에 있어서 다소 자유로웠던 듯하다. 후일 율곡 이이와 송시열은 회재의 거가(居家)에 문제가 있음을 은연중 제기했다. 한 예를 인용하면 “회재가 창기(娼妓)를 여럿 거느린 것을 진실로 현자의 한 흠이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그의 대덕을 덮을 수는 없다. 그러기에 퇴계는 그를 지극히 존상(尊尙)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후학이 가볍게 의논해야 될 것이 아니다.

19) 김동욱(1999). 조선시대 건축의 이해. 서울: 서울대출판부, 126.

3) 서가이면서 종가의 역할, 사당과 어서각(이전인)

이전인은 서자이기 때문에 종통의 가문은 잇지 못함에도 회재의 신위를 봉양하기 위한 사당을 건립하였다. 가문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상으로 조상의 신위가 가통을 잇는 종가에 모셔짐에도 서자인 이전인은 혈통의 가문으로 종가의 역할을 하고자 노력했음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1566년 회재의 신위는 양동의 본가로 옮기게 되며 이전인 사후 그의 장자 이준에 의해 이전인의 신위를 봉안하게 된다. 또한 이전인은 인종이 세자시절 스승 이언적에게 보낸 귀한 어찰을 잘 보관하기 위해 어서각을 세웠으며 1566년(명종21년) 회재가 유배지에서 올렸으나 임금에게는 전달되지 못했던 진수팔규(進修八規)라는 상소문을 다시 상소하여 13년 만에 복작케함으로써 아버지 회재의 명예회복에 성공한다.<sup>21)</sup> 독락당 어서각에 보관된 이언적과 이전인의 수많은 유품들, 그것은 옥산파의 존재를 알리고 사회적 지위를 높여 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으며 더 나아가 옥산파 가문의 정통성을 이어갈 수 있는 자산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가문의 권위 표현, 솟을대문 (이준과 그 이후)

옥산파는 서자가문으로 인해 과거길이 막혔으나 이전인의 장자 이준은 임진왜란으로 납속의 기회가 생겼을 때 군량미를 납부하고 본인은 물론 후손의 과거길을 열었다. 선조 16년에 과거 응시자격을 얻은 이준은 선조 32년에 무과에 급제 했고 선조 43년에는 통정대부청도군수직까지 오른다.<sup>22)</sup> 그리고 1572년 이준과 이순 형제는 회재를 향사하기위한 옥산서원의 건립에도 참여하였다.<sup>23)</sup> 이준과 이순 그리고 그 이후의 후손들은 회재와 이전인에 의해 건립된 살림채, 독락당, 계정, 사당, 어서각 등의 독락당 일곽을 지키고 가꾸면서 안채를 중수하고 소실된 계정을 다시 복축하고 노비들이 거처하는 공수간과 독락당 일곽의 대문인 외삼문(솟을대문) 등을 신축하였다. 독락당에는 방문객들에 의한 시문(詩文)과 기문(記文) 등이 써있는 15개의 편액이 걸려 있으며<sup>24)</sup> 이는 독락당 일곽이 차별 받는 서자가문임에도 영남지역 사람들의 방문이 잦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20) 이수건(1991). 회재 이언적 가문의 사회, 경제적 기반. 경북: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49.

21) 회재선생년보. 참조.

22) 선조16년인 1583년 여진족 추장 미랑계 등이 변방에 침입해 5개월간 전쟁이 지속되어 병사와 군량미, 군마가 터무니없이 부족해졌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병조판서로 있던 율곡이 군량미나 군마를 받는 조건으로 서얼에게 과거를 응시할 자격을 주자고 제안했다. 당시에는 반발이 심했으나 10년 뒤 호조의 건의로 납속규정이 정해졌으며 납속의 기회가 생겼을 때 이전인의 아들 이준은 쌀 80석을 내고 호통문서를 받았으며 본인은 물론 후손의 과거길을 열었다.

23) 그러나 서얼의 후손들은 서원에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옥산서원의 운영에는 참여할 수 없었다. 서원에 원생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그 지방에서 지배층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옥산파 서자계열 뿐만 아니고 경상도, 전국의 서자들과 연대를 통해서 결국 1884년 옥산서원의 원임에 서얼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옥산서원의 서얼 소통은 당시 다른 지방, 특히 영남의 다른 서원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III. 건축구성의 시기적 변화

앞에서 살펴 본 독락당 일곽 조영사를 4개의 중요한 시기 즉, 안채영역의 살림채와 솟방채 건립의 1단계, 사랑채영역의 독락당 건립과 계정 개수의 2단계, 사당과 어서각 건립의 3단계, 마지막으로 공수간과 외삼문 건립의 4단계로 나누어 정리하면 <Table 3>과 같고, 이들을 도면화시키면 <Figure 1>과 같다.<sup>25)</sup>

Table 3. Division of Building Construction

Step	Architect (Client)	Name of Building
1 Step	Lee, Eun-Juk (1491-1533)	① Ke-Jung
		① Salimchae & Sumbangchae
2 Step	Lee, Eun-Juk	② Dok-Rak-Dang
		③ Ke-Jung Remodeling
3 Step	Lee, Jun-In (1516-1568)	④ Sa-Dang
		⑤ Eo-Se-Gak
4 Step	Lee, Joon (1540-1623) & Since then	⑥ Kong-Soo-Kan
		⑦ Weo-Sam-M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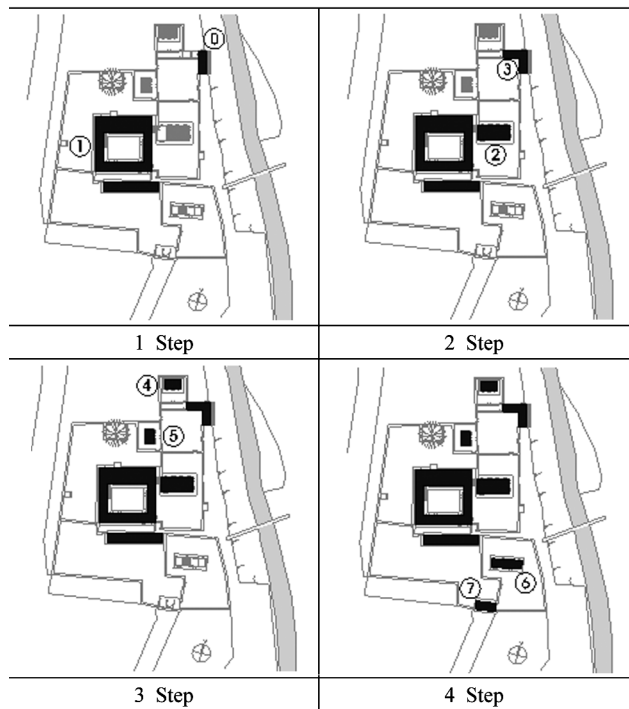


Figure 1. Change of Building Construction

24) 문화재청(2002). 독락당 실측조사보고서(중요민족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제27호). 대전:문화재청, 80-93 참조. 근자재 관원 박계현이 1568년 자제 16명을 제시하고 그 후 부(附)하여 현관한 것, 1576년 관찰사 박소림이 소재 노수신의 독락당 14명을 차운한 시판, 부윤 윤인함의 계정을 차운한 시판, 청북 심동기가 독락당을 제하여 유성룡과 이호민의 구암공 낙성 송별운을 1636년 여름에 차운한 시판 등이 있다.

25) Table 2에서 언급된 자료에 근거하여 정리한 것이다.

1. 단계1 (1515-1531)-살림채영역

단계1은 살림채가 건립된 시기로 독락당 일곽의 터잡기가 시작된 때이며 독락당 고문서(姜石君處許與文記)의 기록에 의하면 서가임에도 살림채에서 회재의 모친 손씨를 2년간(1545년에서 회재가 유배가기 전인 1547년) 봉양했다고 전한다. ‘口’자 평면형태를 지니는 독락당 살림채의 규모는 25칸이며 좌우7칸의 안뜰채는 부엌(2칸)-안방(1칸)-대청(2칸)-머리방(1칸)-책방(1칸)으로 구성되고 우측 모서리에 사랑영역인 역락재(亦樂齋)가 위치하며 사랑방은 한 칸 크기이다. 그리고 ‘ㄷ’자 평면형태의 양동 본가 살림채의 규모는 21칸이며 좌우7칸의 안뜰채는 고방(1칸)-머리방(1칸)-대청(2칸)-안방(2칸)-부엌(2칸)으로 구성되며 좌측 모서리에 사랑영역이 위치하고 사랑방은 2칸 크기이다 <Figure 2>. 이처럼 주요실인 안방과 사랑방은 독락당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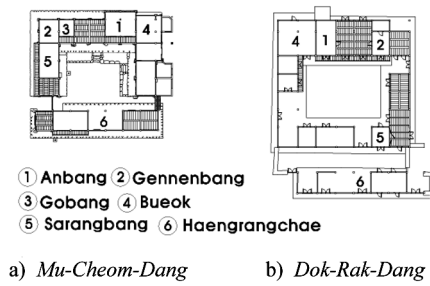


Figure 2. Plan

림채가 양동 본가보다 작으나 전체규모는 더 크며 안마당의 크기도 13,060 mm×10,130 mm로 양동 본가의 11,086 mm×9,780 mm보다 크고 평균 칸 모듈 또한 2,685 mm로 본가의 2,400 mm보다 크다. 계정과 살림채의 배치관계를 살펴보면 <Figure 3>에서 보듯이 살림채는 좌우평균 칸 모듈 2,685 mm을 기준으로 계정으로부터 서측으로 6칸, 전후평균 칸 모듈 2,786 mm을 기준으로 남측으로 5칸 떨어져서 위치하며 행랑채가 포함된 살림채의 전후 범위는 9칸, 좌우는 7칸 정도이다. 그리고 계정을 기준으로 살림채의 전체 영역은 좌우 13칸, 전후 14칸으로 1:1.1의 정방형 윤곽비를 지니며 각 채들은 중·횡방향의 축을 따라 배치되는 그리드체계의 기하학적 질서를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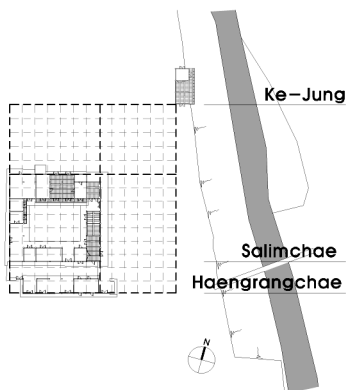


Figure 3. Ke-Jung & Salimchae

2. 단계2 (1532-1553)-독락당과 계정영역

단계2는 독락당 일곽을 대표하는 건물인 독락당의 증축과 계정의 개수가 진행되면서 가장 활발한 조영 활동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살림채에 역락재라는 사랑영역이 있으나 회재는 1532년 독락당을 증축하고 1년 후인 1533년에 계정을 개수하였다. 독락당의 건립은 양동 본가의 사랑채인 무첨당 건립(1540년경)보다 이르며 회재는 7년(1531-1537)동안 독락당에 거주하였다. 독락당은 살림채와 약 2.0 m의 거리를 두고 살림채의 동측에 좌우4칸, 전후2칸, 총8칸의 규모로 증축되었다. 그리고 기록(龔齋先生逸稿)에 의하면 독락당에서 회재의 동생 농재공 이언팔이 1553년 정월 별세하였다고 전하며 이는 옥산리의 서가와 양동 본가와와의 관계가 긴밀하고 우호적이었음을 추측케 한다. 독락당의 가구는 솥을합장과 치밀한 계획에 의해 치목된 향아리보를 사용하는 등 본가와와는 달리 고식적인 수법이 채택되었으며<sup>26)</sup> 단청까지 하여 집의 외관을 장식하기도 했다. 좌우 3칸 전후 2칸의 ‘ㄱ’자형 계정은 절벽 위에 세워졌으며 기존의 3칸 규모에 2칸이 증축된 것이다. 계정의 ‘ㄱ’자형 평면은 <Figure 4>에서 보듯이 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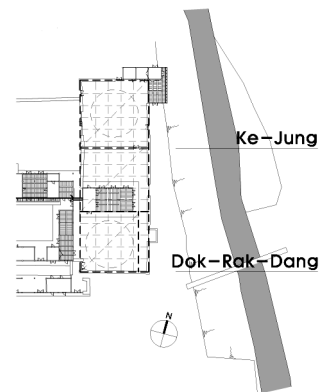


Figure 4. Dok-Rak-Dang

과 연결되어 계정의 형태를 담장 밖으로 밀어냄으로서 계정마당을 중심에 놓고 있으며 이 같은 정자영역은 양동 본가에는 없는 것으로 가장의 권위를 나타내는 사랑영역이 본가보다 강화되었다고 보여 진다. 살림채와의 배치관계를 살펴보면 안마당과 접하는 살림채의 전면 기둥열에서 남측방향으로 약 390 m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전후 2칸의 독락당 중심을 두었으며 독락당의 전면 기둥열은 독락당영역의 중심에 위치시켰다. 그리고 계정과 독락당영역은 동서폭(13 m)과 전후길이(40 m)가 1:3의 비를 지니

26) 문화재청(2002), 독락당실측조사보고서(중요목조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제27호). 대전:문화재청, 178. 솥을합장, 대들보 및 종보의 향아리보 단면형태의 고식(古式)적인 수법사용. 향아리보의 형태는 고려시기 이전부터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시대로 내려오면서 목재 수급이 어려워지고 자연주의사상이 대두되면서 보, 기둥 등의 형태를 자연상태 그대로 치목하여 사용하게 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며 계정영역은 1:1의 정방형 윤곽, 독락당영역은 1:2의 장방형 윤곽, 독락당 앞마당은 1:1의 정방형 윤곽을 지닌다. 이처럼 살림채, 독락당, 계정은 살림채와 계정의 관계처럼 종·횡방향의 축을 따라 배치되는 그리드체계의 기하학적 질서를 유지한다. 그러나 이것은 독락당 이후 건립된 본가 사랑채인 무침당이 종·횡방향의 축에 따르지 않고 살림채의 좌향에서 남서측으로 25도 정도 틀어져 배치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Figure 5>. 이처럼 독락당의 배치는 본가의 무침당보다 오히려 규범과 질서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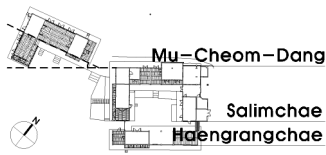


Figure 5. Mu-Cheom-Dang

3. 단계3 (1554-1568)-사당과 어서각 영역

단계3은 회재를 기리는 사당과 인종의 어찰을 보관하기 위한 어서각(御書閣)이 건립된 시기이다. 정면3칸, 측면1칸의 규모를 지니는 독락당 사당은 <Figure 6>에서 보듯이 양동 본가의 사당이 별도의 독립된 공간으로 구성된 것과는 달리 계정, 어서각 등과 함께 하나의 마당을 공유하는 구심적 구성을 이룬다. 사당의 이 같은 구성은 매우 드문 경우로 이는 가장의 생활공간이자 접객공간인 계정, 회재의 유물을 보관하는 어서각, 회재의 위패를 모신 사당 등의 영역을 신인동거의 개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며, 독락당 일곽의 입향조인 회재를 구심점으로 가문의 정통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 진다.<sup>2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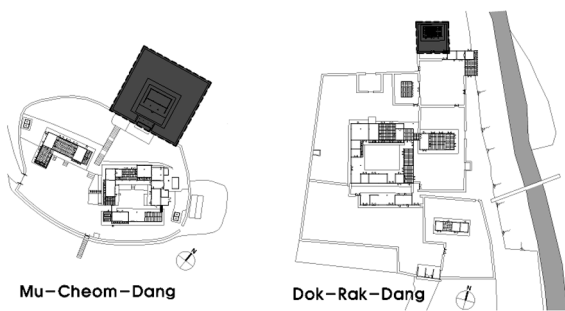


Figure 6. Sa-Dang

회재의 유품이 보관된 정면3칸, 측면1칸의 어서각의 경우 또한 어서각을 에워싸는 담장 중 계정마당이나 계정마루에서 보여 지는 부분을 살장으로 계획하여 어서각의

27) 어서각의 현판 밑에는 書冊不出門外(내부의 서책을 절대 반출하지 말라)는 경고문이 쓰여져있으며 이는 경상도 관찰사의 명령이었다. 회재 이언적의 서책을 오로지 옥산과 후손들만이 보관할 수 있도록 한 의도라 여겨진다.

존재 즉, 회재의 존재를 드러냄으로써 위와 같은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계정, 어서각, 사당의 배치관계를 살펴보면 <Figure 7>에서 보듯이 사당영역은 계정과 겹쳐지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되었으며 어서각 또한 동측에 위치하는 계정, 북측에 위치하는 사당과 겹쳐지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되었다. 이와 같이 독락당 일곽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계정, 어서각, 사당 등의 전체영역은 24,702 mm×25,137 mm로 1:1의 정방형 윤곽을 지니며 각 건물들이 서로 중첩됨 없이 앞에서 살펴본 건물들처럼 종·횡방향의 축을 따라 배치되는 그리드체계의 기하학적 질서를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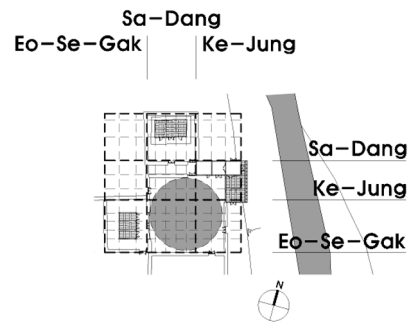


Figure 7. Sa-Dang & Eo-Se-Gak

4. 단계4(1569-조선말기)-공수간과 솟을대문영역

이전인의 장자 이준이 살림채를 중수(1572년)하고 후손들이 독락당의 남측부에 공수간(供需間)과 진입부의 외삼문을 증축한 시기이다. 공수간과 공수간 영역을 구획하는 담장 및 외삼문은 <Figure 8>에서 보듯이 종·횡방향의 축을 따라 배치되는 기존의 건물들과는 달리 그리드체계의 기하학적 체계에서 벗어난다. 이는 독락당 영역의 남측 담장과 마주보면서 계류로의 좁고 긴 통로(약 15 m)를 만들어 내는 공수간 영역의 북측 담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독락당 영역의 남측 담장은 기존의 질서 내에서 결정되었지만 공수간 영역의 북측 담장은 기울기에 변화를 주어 계류로 향하게 되는 시점의 폭(1,100 mm)보다 계류와 만나게 되는 폭(1,950 mm)을 보다 넓게 하였다. 이 같은 변화는 기존의 축에서 약 5도 정도의 기울기를 만들어 내며 이 기울기는 공수간과 외삼문의 배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그리드체계의 기하학적 질서에서 벗어남에도 외삼문은 살림채의 사적영역과 중첩되지 않고 사당과 일직선상에 위치한다.



Figure 8. Kong-Soo-Kan & Wea-Sam-Moon

그리하여 독락당 일곽의 후면부에 위치하는 사당과 함께 독락당 일곽의 전후 범위를 결정한다. 또한 이와 같은 좌우3칸의 외삼문은 규모적, 형태적 측면에서 보면 정면 1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으로 구성된 양동 분가와는 달리 솟을대문으로 계획됨으로써 독락당 일곽의 권위와 위엄을 표현하였으며 이는 곧 옥산과 가문의 권위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였다.<sup>28)</sup> 이처럼 이준 이후의 후손들에게 솟을대문은 옥산과 가문의 정통성을 상징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구성요소 중의 하나였다고 보여 진다.<sup>29)</sup>

#### IV. 건축의 목표와 계획개념

##### 1. 건축의 목표-옥산과 가문의 정통성 구축

독락당 일곽의 건축적 목표는 세대마다 차이를 보여 왔다. 초기에는 소실부인을 위한 살림집의 건립이었다가 선비들의 이상향인 장수와 유식공간을 수용하기 위한 저택으로의 확장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옥산과 가문의 정통성을 구축하는데 집중되었다. 옥산과 가문의 정통성은 사회정치적, 경제적, 건축적 복합체라 할 수 있다. 대학자이자 정치가로서의 회재와 회재가 남긴 유물들 그리고 회재와 적모(회재의 정실부인 박씨)에게서 받은 상속 등이 옥산과 가문의 정통성을 구현하는 자산이 되었다. 또한 이전인은 양동의 본가가 있지만 회재를 기념하는 사당과 어서각을 독락당 일곽, 계정영역에 건립함으로써 혈통의 가문으로 종가의 역할까지 담당하고자 했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당대 정치가들과의 교류 및 납속의 기회가 생겼을 때 납부를 통해 과거길을 열고 서자가문과의 연대를 통해 출입이 금지되었던 옥산서원의 원임에 참여하는 등 끊임없는 도전으로 옥산과 가문의 존재를 알리고 가문의 정통성을 구축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 2. 공적영역의 확장과 영역성의 강화

독락당 일곽은 하나의 주택이라기보다는 거주하기 위한 주택과 가문의 정통성을 구축하기 위한 주택, 두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즉, 안사랑의 역락재가 포함된 살림채는 그 자체로 완결된 하나의 주택이며 독락당과 계정영역 등의 공적영역들도 또 하나의 주택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서쪽의 살림채와 행랑채가 가족의 생활공간으로 거주하기 위한 사적영역이라면 동쪽의 독락당 부분은 사회정치적,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공적영역으로써 가문을 알리고 옥

산과 가문의 정체성을 구축하는데 좋은 도구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독락당 일곽의 공적영역은 외삼문(솟을대문)-공수간-독락당-계정-어서각-사당 등의 5개 건물로 확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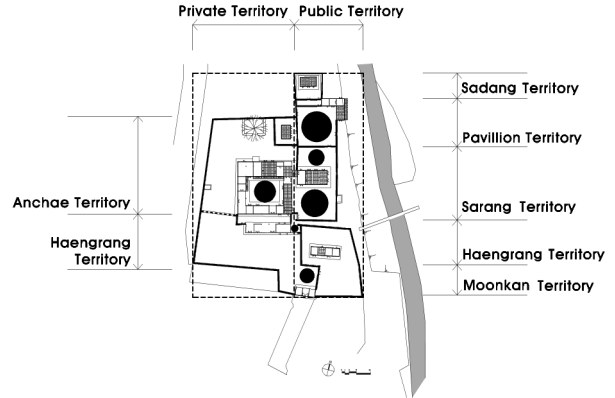


Figure 9. Extension of Public Territory & Territoriality

<Figure 9>에서 보듯이 외삼문, 공수간, 독락당영역은 종방향의 축을 따라 확장되었으며, 계정, 어서각, 사당영역은 계정마당을 중심으로 하는 구심적 구성을 이루면서 확장되었다. 그리고 독락당 앞마당은 서측의 살림채 외벽, 남동측의 담장에 의해서 구획되며 계정영역 또한 ‘ㄱ’자형의 계정과 담장들에 의해 구획되었다.

그리고 솔거노비의 살림집인 공수간도 담장으로 에워싸이므로써 영역적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양동 분가에서는 보여 지지 않는 것으로 건물과 담장 등에 의한 에워싸임은 각 영역의 독립성을 유지시키면서 영역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영역성을 강화시킨다. 그리고 이 같은 영역성은 개인 또는 단체의 정체성을 인식시켜주는 역할을 한다.<sup>30)</sup> 이와 같이 독락당 일곽의 건축주들은 공적영역을 확장시키고 영역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옥산과 가문의 정체성을 구축하고자 했으며 독락당 일곽을 지키고 가꿔 가문을 유지, 발전시킬 것을 당부한 선조들의 ‘회의문’ 내용을 따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 V. 기하학적 응용과 설계요소

##### 1. 구성축과 건물배치

독락당 일곽에는 4개의 건물군이 존재한다. 서쪽의 살림채군, 동쪽의 독락당군, 독락당을 사이에 두고 북측으로 계정, 사당, 어서각군 남측으로는 공수간과 외삼문군이

28) 연경당의 경우 내부의 중문에서도 주인이 기거하는 사랑채로 진입하는 문은 솟을대문으로 하고, 여자들의 공간인 안채로 향하는 문은 평대문으로 하였다. 이처럼 솟을대문은 권위감이나 상징성의 역할을 한다.

29) Kim, J. (1995).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tial property according to social changes of the SA RANG-CHE in the upperclass-house in the late period choson Dynasty. Unpublished mater's thesis, University of Hong Ik, Seoul, 73. 사람들은 신념과 가치, 그리고 자신의 상징적 세계에 부여한 또 다른 의미를 통해서 주택을 의식하게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30) Shim, E., & Kwon, Y. (2005). Meanings Expressions of Territoriality and Privacy in Traditional Korean Housing.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14(5), 5. 영역성의 기능을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예측할 수 있는 일상성의 기능, 영역을 통해 사회 내에서의 위계를 상징하는 사회 조직체로서의 기능, 마지막으로 개인 또는 단체의 정체성 표현으로의 기능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 이때 각각의 건물 배치는 <Figure 10>에서 보듯이 강력한 구성축(중축)에 의해 질서화 되고 있다. 독락당 일곽 중 제일 전면부에 위치하는 외삼문과 가장 후면부에 위치하는 사당이 일직선상에 놓이며 이 중축을 기준으로 살림채영역과 독락당, 계정, 공수간영역 등이 명확하게 나누어진다. 또한 살림채의 안뜰채와 나란하게 연결되는 독락당 전면의 남측 기둥열은 공적영역을 한정짓는 전면부와 후면부 담장 깊이의 중간인 1/2 지점에 위치하며 또 하나의 구성축(횡축)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이 축을 중심으로 독락당 영역의 남측과 북측 담장이 같은 깊이를 지니며 후면부의 사당과 전면부의 외삼문, 계정과 공수간도 같은 깊이를 지니며 위치한다. 이와 같이 남북의 중축은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을 분리하며 동서의 횡축은 공적 건물의 배치에 기준이 되고 있다. 이처럼 여러 대에 걸친 확장과 변화로 인해 다양한 건물들이 배치된 독락당 일곽은 축이라는 기하학적 응용을 통해 각 건물들이 질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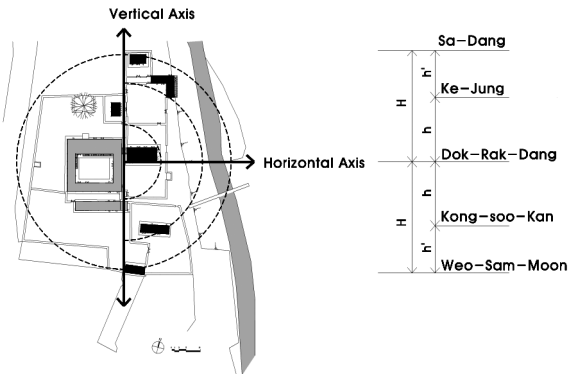


Figure 10. Compositional Axis & Building Arrangement

2. 조절선(Regulating Line)<sup>31)</sup>

독락당 일곽에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살림채영역, 독락당영역, 계정영역, 사당영역, 공수간영역 등이 존재하며 a)에서 보듯이 살림채영역과 공적영역군은 그리드체계의 기하학적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우선 맨 처음 건립된 살림채영역은 그리드 체계를 유지하면서 b)에서 보듯이 독락당 일곽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즉, 대지의 동측에는 계류가 서측에는 길(도로)이 있어 대지의 동서폭이 결정된 상황에서 동서폭의 중심부에 그리고 살림채영역의 깊이를 결정짓는 남·북측 담장 깊이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이때 살림채영역의 북측 담장은 계정마루의 남측 기둥열과의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그리고 공적영역군은 c)에서 보듯이 일정한 크기의 폭과 유사한 깊이를 지니는 조절선에 의

해 배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절선은 사당(C)-계정(C)-독락당(2C)-공수간(C)-외삼문(C)의 영역을 1:1:2(1+1):1:1이라는 리듬을 부여하면서 각 영역을 정방형의 기하학적 윤곽으로 유지시킨다. 즉, 건물과 담장에 의해 구획되는 독락당 앞마당, 독락당을 포함한 뒷마당, 계정마당, 사당영역 등이 정방형의 윤곽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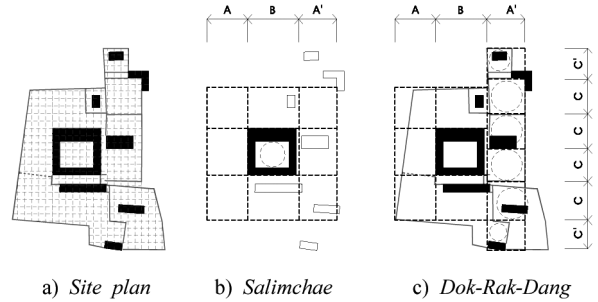


Figure 11. Regulating Line

이 같은 정방형은 그 형이 지니는 단순성과 합리성의 강한 질서 때문에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존재하는 가장 순수하고 근원적인 형태로서 사용되어 왔다.<sup>32)</sup> 그리고 독락당 일곽에서도 그리드체계와 정방형의 조절선은 자칫 영역들이 무질서하게 구성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각 영역들이 질서와 조화를 유지케 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VI. 결 론

100년간의 조영사를 통해서, 독락당 일곽의 건축주들이 지향했던 건축적 목표는 소실부인의 살림집에서 시작된 서자가문에, 옥산과 가문의 정통성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집중되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채택했던 계획개념은 사회정치적, 경제적,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공적영역의 확장과 영역성의 강화이었고 그 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선택한 설계요소들은 축, 조절선 등의 기하학적 응용이었다. 초기 소실부인을 위한 살림집의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은 독락당영역, 계정영역, 사당영역, 어서각영역, 공수간영역(행랑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이때 독락당 일곽 중 제일 전면부에 위치하는 솟을대문의 외삼문과 가장 후면부에 위치하는 사당이 하나의 강력한 구성축(중축)을 형성하고 이 축을 중심으로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이 명확하게 이원화되었다. 그리고 살림채와 나란하게 배열되는 독락당의 전면 기둥열은 또 하나의 구성축(횡축)을 형성하며 이를 기준으로 계정과 공수간, 사당과 외삼문 등이 유사한 간격으로 북측과 남측에 위치하였다. 이때 공

31) Ching, F. (1997). Architecture: Form · Space & Order. 황연숙 (역). 건축의 형태공간 · 규범. 서울: 도서출판국제(원저 1979 출판), 290 참조. 조절선은 요소들의 비례, 배열을 조절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조절선은 질서에 대한 지각을 재확인시켜 주는 수확의 형태를 갖는다. 조절선의 선택은 작품의 기본 기하학적 형태를 일정하게 고정시킨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32) Park, K. (1998). A Study on the Geometric Logic of square in Architectural Form.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4(12), 102.



적영역들은 같은 크기의 폭과 깊이의 조절선을 기준으로 건물과 담장이 배치되어 정방형의 윤곽을 구축하였으며 공적영역 중 특히 계정, 어서각 및 사당의 중심적 구성은 독락당 일곽만이 지니는 독특함으로 생활영역이자 신인동거개념의 영역이면서 동시에 회재가 남긴 유물들을 보관하는 영역으로써 옥산과 가문의 뿌리가 되는 장소를 구현하였다. 이처럼 독락당 일곽은 꾸준한 공적영역의 확장을 통해 가문의 존재를 알리면서 양동 본가와 차별화했다. 건축적 목표와 계획의 개념을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설계요소들을 선택해 구축화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작용하는 기하학적 응용을 설계원리라 할 수 있다면 독락당 일곽의 설계원리는 공적영역의 확장에 기준으로 작용하는 축과 조절선의 기하학적 응용이라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가계사와 조영사에 주안점을 두어 서자가문에서 출발한 독락당 일곽의 계획개념과 설계원리를 다루었다는데 의의를 지니나 일부 건물의 건립년도에 대한 이견을 추론을 통해 설정한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이것이 독락당 일곽의 계획개념과 설계원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연구는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 REFERENCES

1. 김동욱(1999). 조선시대 건축의 이해. 서울: 서울대출판부.
2. 김봉렬(1996.08). 은둔을 위한 미로들-독락당과 옥산 서원. 서울: (주)이상건축.
3. 문화재청(2002). 독락당 실측조사보고서(중요목조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제27호). 대전: 문화재청.
4. 이성형 외 9인(1992). 회재의 사상과 그 세계.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5. 이수건(1991). 회재 이언적 가문의 사회, 경제적 기반. 경북: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6. 최영성(2001). 조선유학 사상사 II. 서울: 아세아문화사.
7. 홍만선(1982). 산림경제 I. 서울: 민족문화추진위.
8. Ching, F.(1997). Architecture: Form · Space & Order. 황연숙(역). 건축의 형태공간·규범. 서울: 도서출판국제(원저 1979 출판).
9. Choi, S., Kim, K., & Hong, D. (2001). A Comparative Study on the Method of Introducing Natural Landscape in Kwan-Ga-Jung and Dok-Rak-Dang Ke-Jung.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78(8), 121-127.
10. Kim, J. (1995).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tial property according to social changes of the SA RANG-CHE in the upperclass-house in the late period choson Dynasty*. Unpublished mater's thesis, University of Hong Ik, Seoul.
11. Kim, K.(1984). A Study on the Dok-Rak-Dang a residence of Cho-seon dynasty (I).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8(12), 32-39.
12. Kim, S., & Choi, H. (2003). A study on the spatial Configuration and Construction on Dokrakdang.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9(11), 199-206.
13. Kweon, H. (2006). A Study on Dok-Rak-Dang and Hyang-Dan Upper Class of Chosun Dynasty with The Perspective of Deconstructionist Art Theory.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History*, 15(4), 87-104.
14. Lee, C. (1998). *A Comparative Study on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Dok-Rak-Dang and Hyang-Dan; Through Analysis by Their Design Proc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Ulsan, Ulsan.
15. Park, K. (1998). A Study on the Geometric Logic of square in Architectural Form.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4(12), 95-103.
16. Shim, E., & Kwon, Y. (2005). Meanings and Expressions of Territoriality and Privacy in Traditional Korean Housing.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Interior Design*, 14(5), 3-9.
17. 함성호(2012. 4. 19). 함성호의 옛집 읽기<57> “책 을 지켜라!” 옥산서원. 동아일보.
18. 독락당 어서각은 왜 굳게 닫혀 있었나? -조선 서자 들의 500년 도전사. KBS1 역사스페셜 2010.12.16. <http://www.kbs.co.kr>

접수일(2013. 9. 27)  
 게재확정일자(2013. 12. 10)